

# “작은 움직임, 고통받는 바다 살리는 출발점”

##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8)소셜벤처기업 스몰액션(주) 정태영 대표

해양 생물 위협 주범 페어구수거·세척·처리 활동 주력  
페그물 40% 이상 재활용...가방·파우치·원단 등 생산  
일본·싱가포르·칠레 등 수출...한국판 '파타고니아' 목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큰 울림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브랜드 기업을 꿈꿉니다.”

수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 바다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해양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등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목표에 터전을 둔 벤처기업 스몰액션(주)의 정태영(33) 대표는 페어구 등 해양 폐기물로 병들어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지속해 오고 있다.



2. 지난해 열린 '보해소주 스몰액션 캠페인'에서 페어망, 페어구로 만든 작품을 전시해 해양보호의 필요성을 알렸다.

3-4. 페어망을 40% 이상 재활용해 만든 스몰액션의 백팩, 파우치 등 패브릭 제품.

문화인류학으로 대학원까지 마친 정 대표는 사람과 공간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됐고 이후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목포에서 진행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바다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

바다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한 그는 2019년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살리기 위한 작은 첫발을 내디뎠다.

스몰액션은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바다 쓰레기 전시, 플로깅(Plogging)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해양조와 '보해소주 스몰액션(Small Action)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페어망을 수거해 유용한 제품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국에서 한 해 5천톤에 달하는 페어망이 버려지는데 페그물을 청소하는 어민 분들이 많음에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이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생계를 위해 어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수거, 세척, 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몰액션이 수거한 누적 페어망은 383t으로 가방, 파우치, 리사이클 메쉬(Mesh) 원단 등 패브릭 제품부터 최근에는 캠핑 박스 등 플라스틱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페어망과 페플라스틱을 40% 이상 재활용하는 독자적인 기술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기존에 보유 중인 2개의 특허 기술을 비롯해 올해 추가로 2개의 기술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지역 어민들과 함께 페어망을 수거하는 과정은 정 대표에게 큰 여운을 남긴다. 그는 “페어망을 수거하거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민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며 “생업을 잠시 미루고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창업 초기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도전해 온 스몰액션은 올해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기

술력을 인정받아 환경산업협회 재활용 산업육성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페그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창업 이후 매 순간이 도전이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만큼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확신한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제품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퀄리티와 쓰임새를 고민한다”며 “구매하고 싶은 만큼 좋은 제품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동시에 진정성이 담긴 활동들을 성실하게 해오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스몰액션을 미국의 친환경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정 대표의 오랜 꿈이자 최종 목표다.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이 위치한 칠레와의 협력은 올해 스몰액션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다.

그는 “전보다 많은 분이 지지를 보내 주고 있어 바다를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기가 지금”이라며 “지난 2022년 일본, 싱가포르의 수출에 이어 올해 칠레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마음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목표에 애착이 있어 지역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페어망 같은 난이도 높은 해양 쓰레기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등 다른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팬데믹)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며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 때 창업에도 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은솔 기자



1. 스몰액션(주) 정태영 대표

1.

스몰액션이 수거한 누적 페어망은 383t으로 가방, 파우치, 리사이클 메쉬(Mesh) 원단 등 패브릭 제품부터 최근에는 캠핑 박스 등 플라스틱 제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페어망과 페플라스틱을 40% 이상 재활용하는 독자적인 기술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기존에 보유 중인 2개의 특허 기술을 비롯해 올해 추가로 2개의 기술을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지역 어민들과 함께 페어망을 수거하는 과정은 정 대표에게 큰 여운을 남긴다. 그는 “페어망을 수거하거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민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며 “생업을 잠시 미루고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창업 초기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도전해 온 스몰액션은 올해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기

술력을 인정받아 환경산업협회 재활용 산업육성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페그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창업 이후 매 순간이 도전이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만큼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확신한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제품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퀄리티와 쓰임새를 고민한다”며 “구매하고 싶은 만큼 좋은 제품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동시에 진정성이 담긴 활동들을 성실하게 해오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스몰액션을 미국의 친환경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정 대표의 오랜 꿈이자 최종 목표다.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이 위치한 칠레와의 협력은 올해 스몰액션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다.

그는 “전보다 많은 분이 지지를 보내 주고 있어 바다를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기가 지금”이라며 “지난 2022년 일본, 싱가포르의 수출에 이어 올해 칠레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마음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목표에 애착이 있어 지역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페어망 같은 난이도 높은 해양 쓰레기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등 다른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팬데믹)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며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 때 창업에도 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은솔 기자



3.



4.

## 광주지역 기업인 13명 유공자 표창 수상

대한민국 산단 60주년 기념...동탑산업훈장 등 영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분부는 18일 “최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지역 기업인 13명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산업단지 역사 재조명 및 비전 영상상영, 60주년 기념 유공자 포상, 기념세레모니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은 전년보다 규모를 늘려

정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총 132점을 포상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총 13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광철 코비코(주)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박준성(주)기리온 대표, 김일환(주)에이치글로벌 대표, 박석순(주)용아산업 대표, 박용서(주)우성정공 대표, 노향석(주)이화하이테크 대표, 서호

연 와우코리아(주)부사장, 김정은(주)캠스 대표, 김은수(주)한성관셀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은 전유리(주)라피네제이 팀장, 김진우(주)진우알테크 수석연구원, 김윤근(주)김스바이오 이사, 임아름(주)현진기업 대표가 수상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산업단지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분과 가족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



동탑산업훈장 수상자, 조광철 코비코(주) 회장

한다”며 “지역 및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단지가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 GICON '광주음악창작소 양성' 교육생 모집

미디어 프로덕션 등 전문 교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8일 “지역음악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광주음악창작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 제작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교육과정은 미디어(MIDI) 프로덕션, 사운드 엔지니어, 게임음악 크리에이티브 과정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게임음악 크리에이티브 과정은 게임콘텐츠와 음악을 연계해 게임-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음악 제작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지역음악산업의 확장성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광주·전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2024. 12. 07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  
국립등대박물관

총상금  
2,020만원

문학상 공고

2024. 9. 16(월) ~ 11. 15(금)

공모부분  
호미곶 호미문학상(시, 수필)

접수방법  
이 메 일 : biz@kyongbuk.co.kr

우편접수 : (우37745)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  
13층 대외협력실 호미곶 호미문학상 담당자

심사발표  
11월 25일(월) 경북일보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  
12월 7일(토)

전국한글백일장·전국미술사생대회

2024. 12. 7(토) 13:00 ~

사전접수  
12월 5일(목) 18:00까지

접수방법  
이 메 일 : biz@kyongbuk.co.kr

심사발표  
행사 종료 3일후 경북일보 홈페이지

\*심사 후 학교 및 자택으로 상장발송, 별도의 시상식 없음

문 의  
· 경북일보 대외협력실 ☎054-289-2215  
· 자세한 사항은 경북일보 홈페이지 참조

주최·주관 **경북일보**

후원 **경상북도** **포항시** **국립등대박물관**